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6. 10. 10(월)	
		작 성 문 의	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안보정책관 우성규 사무관 박유리 (Tel. 044-200-2134)
* 즉시 사용			

아시아협력대화(ACD) 제2차 정상회의(10.10) 참석 결과

- 우리나라의 ACD 역내 주도적 입지와 역할 강화 및 범아시아 지역에서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
- 북핵문제 관련 ACD 회원국들의 협조 강화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10.10(월) 태국에서 개최된 「아시아협력대화(Asia Cooperation Dialogue; ACD) 제2차 정상회의」에 참석하여 ACD 회원국 정상들과 “아시아의 다양성 가운데 일체성 지향(One Asia, Diverse Strengths)”을 주제로 「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」의 아시아 지역 내 이행 촉진 및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※ 2002년에 18개국으로 출범한 ACD는 현재 아시아 및 중동 국가 34개국이 참여하는 범아시아 지역협력체로 발전하였으며, 빈곤경감, 경제발전, 상호교류 등 실질협력 방안을 협의

- 그간 외교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나(14회), 2012년 제1차 정상회의(쿠웨이트)를 개최하면서 협력수준을 격상

○ 황 총리는 국별 대표 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천명한 우리의 4대 개발협력구상을 설명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, 「아시아협력대화」 6개 우선협력분야 중 과학·기술·혁신(Science, Technology, and Innovation) 분야에서 선도국(Prime Mover)을 맡게 된 우리나라의 향후 협력비전과 활동계획을 밝혔다.

※ ACD 우선협력분야 : ①식량·물·에너지, ②연계성, ③과학기술혁신, ④교육·인적자원, ⑤문화·관광, ⑥지속가능한 개발

- 우리의 4대 개발협력구상 중 “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” 구상 이행을 통해 △과학기술 인력 양성, △과학기술혁신 정책 관련 역량 강화, △혁신 사업가 양성 등을 지원하고, 적정과학기술센터 지원 및 민관협력을 통해 개도국 주민들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도 지원할 계획임을 소개하였다.

※ 4대 개발협력구상: 1)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2)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3)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4)새마을 운동의 국제적 확산

※ 적정과학기술(Appropriate S&T) 거점센터는 동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도국 국민의 생존, 생계 및 지역사회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 / 현재 캄보디아에는 정수처리, 라오스는 농산물 가공·저장, 네팔은 농특산물 가공 거점센터 등 운영중

□ 황 총리는 특히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,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을 위한 **ACD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**하였다.

□ 참석 정상들은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인들이 향유할 공동의 평화, 안정, 번영을 위해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, 이번 회의 결과로서 회원국 간 협력의지를 다지고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한 「**ACD 비전 2030**」, 「**방콕 선언**」, 「**연계성 동반자 성명**」 등 3개의 문서를 채택하였다.

○ 신임 의장국인 UAE는 ‘지속가능한 에너지’를 주제로 제15차 ACD 외교장관회의(2017.1월)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히고,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으며, 제3차 ACD 정상회의는 2018년 이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※ (ACD 비전 2030) 16.3월 ACD 외교장관회의시 합의된 ACD 6개 우선 협력분야 위주의 협력 강화 및 포용적 성장·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한 정치적 의지 표명, (방콕 선언) ACD 6개 우선협력분야의 협력 방향 및 구체 행동계획 청사진 제시, (연계성 동반자 성명) 역내 안정·번영 및 지속가능한 개발 이행의 토대로서 연계성의 중요성 강조